

# 예약 취소 과다 위약금 부과 못한다

공정위, 호텔·예약장 24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90일 이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해야

예약장 예약을 몇 달 전에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예약일을 목전에 두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호텔예약장 및 전문예약장을 조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고지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정 대상 호텔 및 예약장은 워커히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 팔래스호텔, 서울 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간컨벤션웨딩 등 일반예약장 19곳이다.

이들 업체는 예약장 계약을 중도에 해할 때 예약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웃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다.

일례로 A호텔 예약장은 예약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계약금을 환불해주도록 규정했다. 일반예약장인 B예약장은 계약 해지 시 아예 환불을 불가능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예약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해당 약관을 고지도록 했다. 예약일



예약장 취소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예약장 내부 모습.

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총 예약금액의 10~100%까지 부과됐던 위약금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10~35%)에 따르도록 했다.

C씨는 올해 1월 예약을 24일 앞두고 예약장 계약을 취소했다가 계약금 200만원과 별도로 총 예약비용의 절반 수준인 1천 18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아 소비자 피해신고를 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일반예약장의 경우 계약해제가 있더라도 예약일 90일 전

까지는 계약금 이외에 별도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하고, 60일 전까지는 총 예약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예약 당일까지는 35%까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호텔예약장의 경우에는 예약일 9일 전 이후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 예약금액의 35%, 1일 전까지는 50%, 예약 당일에는 7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

하면 예약장은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나타날 경우 이를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예약장의 경우 예약 및 피로준비가 압박한 시점에 예약을 취소한 게 아닌데도 이를 비용을 반영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위약금은 예상 순이익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트렉스타, 기능성 워킹화 시장 돌풍

몸의 균형 유지 '코브라 워킹 140 고어텍스' 출시

신발 시장이 변하고 있다. 아웃도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워킹화를 중심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국내 워킹화 매출액은 2005년 500억원에서 2012년 1조원으로 급증, 7년 만에 20배나 성장했다. 특히 워킹화 시장과 아웃도어 신발 시장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며 또 한 번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140 고어텍스(사진)는 몸의 중심과 균형을 유지하는 척추의 움직임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얻어 자체 개발한 신발창을 적용했다. 돌이나 장애물이 있는 고르지 않은 길 위에서도 창의 가운데를 기점으로 창의 내측과 외측이 분리돼 균형을 바르게 잡아준다.

아웃도어가 산과 관련된 등산 개념에서 벗어나 도심으로 내려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또한 신발을 중요한 생활의 한 아이템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신발 제조들이 단순히 디자인, 패턴, 색상을 중요시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차별화된 기술들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최근 노스페이스나 K2, 트렉스타, 마텔 등 국내 유수의 아웃도어 브랜드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아웃도어 워킹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트렉스타의 코브라 워킹

또 바닥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높여주기 위해 땅을 디디는 발 앞부분의 창에 고무조각들을 사용, 보다 활동적인 아웃도어 워킹을 돕는다. 2만명의 발 데이터의 표준을 잡은 네스핏 기술로 사람 본연의 발 모양에 가장 가까운 신발을 만든 것도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한 걸음걸이를 보장한 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모발건조기 전기사용료 '천차만별'

브랜드별 연간 2.3배 차이...파나소닉 제품 가장 저렴

소비자원, 21개 제품 조사

시중에 판매 중인 모발건조기의 연간 전기사용료가 제품에 따라 최대 2.3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발건조기 8개 브랜드 2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연간 전기사용료가 가장 많은 제품은 신일산업(SHD-L60KP) 제품으로 가장 적은 파나소닉(EH-ND11) 제품보다 2.3배 높았다고 22일 밝혔다.

파나소닉 제품은 짧은 모발(15cm·수분함량 20g)의 경우 전기사용료가 4800원, 긴 모발(40cm·수분함량 60g)은 1만4500원인 데 비해 신일산업 제품은 짧은 모발은 1만1400원, 긴 모발은 3만4100원이었다.

전기사용료는 1kWh가 160원일 때 1일 1회, 1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에서 잦은 상태의 짧은 모발과 긴 모발을 건조할 때 소요되는 요금을 말한다.

이번 시험은 연간 전기사용료를 포함해 안전성, 모발 건조시간, 소음 등에 대해 진행했다. 안전성 시험에선 신일산업 제품이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에 등록된 온도 퓨즈와 다른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 퓨즈는 모발건조기에서 과열

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고장 났을 때 추가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다.

건조시간의 경우 로벤타(CV4771), 바비리스(D221K·D261K), 비탈사순(VS5543PIK), 유닉스(UN-A1017), 필립스(HP8260/00) 제품이 짧았다. 짧은 모발을 말리는 데 4분, 긴 모발은 11분 걸렸다.

이 중 바비리스(D221K) 제품은 소비전력이 1390W로 가장 낮았으며 가격도 2만47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필립스 제품은 풍속과 온도를 분리해 조절할 수 있지만 소비전력이 2천 40W로 전체 시험대상 제품 중 가장 많았다. 가격도 5만4천11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다.

소음 시험에서는 소리가 작은 제품 일수록 건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모발건조기의 풍속과 온도가 최고인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 비탈사순(VS5067SK), 신일산업, 파나소닉(EH-ND11·EH-NE15) 제품이 소음이 적었다. 이밖에 소비전력, 전기적 안전성, 이상 운전, 낙하 충격에 따른 기계적 안전성 등의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신혼여행 취소하니 '위약금 폭탄'... 피해자 매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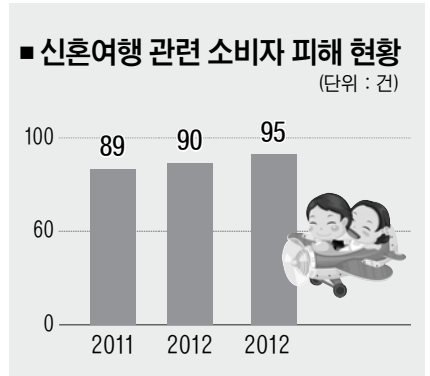
절반이 '특약 과다 청구' 피해

계약 다음날 취소도 100% 물려

특약 사항 꼼꼼히 확인 중요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274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8.9%(134건)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21.6%(29건)나 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이상·친족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나 신혼여행

은 특약을 내세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 여행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여행일정의 임의변경'으로 21.5%(59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쇼핑 강요,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 20.8%(57건),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 8.8%(24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 135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하며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광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행도중 일반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결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게시판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b>두걸음직업소개소</b> 북구 두암동 824-2번지 근로자수시모집(현장근로자, 여성근로자) 건축물 철거, 야리비이트 상담 <b>대표 조창욱 ☎(062)263-3862</b>	<b>광남기업</b> 북구 두암동 849-26 (두암시장이남구) 사시,유리,조립식판넬 <b>대표 이경규 ☎(062)263-0036,010-3612-2107</b>	<b>올리브반찬도시락</b> 북구 문흥동 741-20번지 맛깔스런 반찬과 국내산김치로 67지 반찬과 국을 준비하였습니다(한달2인25일기준125,000원) <b>☎(062)269-0662,010-9856-0662</b>	<b>해강인쇄</b> 동구 광산동 69-6(구시청사거리부근) 일반명함,컬러명함,스티커,청첩장 각종고급인쇄전문 <b>대표 이순호 ☎(062)227-7712</b>		
<b>동양철학원</b>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b>☎(062)224-7687, 010-2811-7687</b>	<b>국보공예</b> 동구 공동56(오성주차장앞) 전통가구명인,담양공예인 뒤주침상통뚝나무,이전통기법제작 <b>대표 담양최상원 ☎(062)234-9974</b>	<b>하심사</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왕산신협앞골목) 마음치유, 몸치유 <b>대표 무현스님 ☎(062)236-5210,010-7603-3852</b>	<b>뚱이레</b> 동구 대의동10-1 바다장어 찜무미전문 찜순구이 <b>대표 이재신 ☎(062)234-7942</b>	<b>낙지한마당</b> 동구 대의동 69-3번지 (동부경찰서앞) 연포탕,낙지볶음 낙지비빔밥전문 <b>☎(062)225-1171</b>	<b>산수모밀</b> 동구 금남로 2가 15 (전일빌딩 옆코너) 시원한모밀국수,콩국수,막국수,비빔국수 <b>대표 김기창 ☎(062)233-5525</b>
<b>광주화랑</b> 궁동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b>대표 박종환 ☎(062)232-4784</b>	<b>박당화랑</b> 동구 공동 51-18번지 궁동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b>대표 박환승 ☎(062)222-6866</b>	<b>석당화랑</b> 동구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b>대표 이석재 ☎(062)222-3118</b>	<b>큰술단지</b> 동구 불로동 107-4 돌솥설렁탕, 돌솥갈비탕 돌솥우거지탕, 생고기 <b>대표 추하림 ☎(062)222-6427</b>	<b>커피홀릭</b> 총장로3가 11번지 (이류유정문건너편2층)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 <b>대표 김현오 ☎(062)229-0230</b>	<b>빠리노래방</b> 동구 호남동 78-5번지 2층(메가박스앞) 최신유행곡 음반 디자른비 <b>대표 이순애 ☎(017)612-3765</b>
<b>이가회관</b> 동구 금남로2가 11-2 (구)동구청 뒷골목 각종모임, 예약반음 단체손님예약주문 <b>대표 이복레 ☎(062)224-1541</b>	<b>수양공인중개사</b> 동구 금남로3가 삼호빌딩3층 <b>대표 정태철 ☎(062)232-3315</b>	<b>씨튼베이커리</b> 동구 금남로하상가 E동51호 (분수대빌딩) <b>대표 박연옥 ☎(062)222-1151</b>	<b>꽃과사람들</b> 동구 대의동 전일빌딩뒤 꽃다발,꽃바구니,근조,화환모든것 <b>대표 박경자 ☎(010)8473-0057</b>	<b>고전방</b> 동구 공동 34-4번지 (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서양화,고서화 전문판매점 <b>대표 김화중 ☎(062)224-4869</b>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전문판매점 <b>대표 서태석 ☎(062)222-1936</b>